



지난달 20일 열린 '지진피난훈련 콘서트'에서 요코하마시 소방대소장이 관객들에게 대피훈련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은 요코하마시가 도심재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의 아심작이다. 대극장 정면에 자리한 4623개의 파이프 오르간은 미나토미라이홀의 아이콘이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제공)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일본편
(14)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지역민과 예술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씨어터'

〈Community Theater〉

요코하마=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0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대극장. 공연을 관람하기엔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2020석의 객석은 아침부터 서두른 '부지런한' 관객들로 거의 찼다. 무대에 오른 40인조의 요코하마시 소방음악대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 'My heart will go on'을 시작으로 고타로 오시노의 '블루스카이', 버나드 그린하우스의 '하와이언 페스티벌' 등 감미로운 선율을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리차드 코펠로의 '빛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무렵, 갑자기 무대 위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소방음악대의 아름다운 연주에 흥분 젖어있던 관객들은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연주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의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등장해 "지금 사기이만(濁)에서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위험이 예상된다"며 "우선 객석 밑으로 몸을 낮추고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 4층으로 대피하라"고 말했다. 4층으로 피신한 관객들은 스태프들이 전해주는 '바깥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후 쓰나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뉴스에 따라 관객들은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잠시 중단됐던 소방음악대의 공연은 일본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불리는 이시다 아요미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갑작스런 지진소통에도 끝까지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던 관객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를 함께 불렀다.

이 날 요코하마시 소방음악대의 공연은 가장 지진에 대비한 '지진피난 훈련콘서트'였다. 지난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 악몽을 겪은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하는 각종 재난훈련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을 관람하는 도중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관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진피난 훈련콘서트'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다소 공연장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재난콘서트라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연이라면 '물지도 따지도 않고' 안방을 내주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기능과 역할은 철저히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내로라 하는 아티스트들의 전용무대인 유명 아트센터와 달리 미나토미라이홀은 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개방한다. 말 그대로 '커뮤니티 씨어터'(Community Theater)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진 훈련·1만원대 콘서트로 대중들에 더 가까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상설...아마추어에 열린무대

도쿄 남부의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물간 유행가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처럼 쓸쓸한 도시(blue city)였다. 지난 1859년 개항이후 조선업 등 산업도시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도쿄까지 40분 소요되는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서히 활력을 잃었다. 요코하마시는 취업자 4분의 1이 도쿄로 출근하는 등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자 1965년 워터프런트(waterfront)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물, 숲, 역사가 아우러진 '미나토미라이 21'(MM21)을 추진했다. 33만평의 기존부지에 23만평의 매립지를 추가해 도시를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소풍, 문화 등 6개 권역으로 나뉜 21세기 미래의 항구도시로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다.

그중에서도 미나토미라이홀은 '예술도시 요코하마'를 내건 'MM21'의 아심작으로 지난 1998년 문을 열었다. 공연장 주변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요코하마 랜

드타워, 대형쇼핑몰인 '퀸즈 스퀘어 타워', 요코하마 시립미술관, 코스모 클락(Cosmo Clock) 등이 인접해 있다.

요코하마가 속해있는 가나가와현에는 100여 개의 공연장이 있지만 클래식 전용홀로는 미나토미라이홀이 단연 최고다. 요코하마시 산하 요코하마 문화예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미나토미라이홀은 메인홀인 대극장, 440석의 소극장, 6개의 연습실, 12개의 분장실, 리허설 룸, 리셉션홀, 아티스트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대극장은 중앙에 무대를 설치해 마치 원형경기장을 실내에 옮겨놓은 듯하다. 무대 한 가운데에 설치된 미국의 C.B Fisk회사의 4623개의 파이프 오르간은 미나토미라이홀의 아이콘. 나무로 제작된 신발모양의 내부구조는 4층 객석의 관객들에게도 고른 음향을 전달한다. 소극장은 실내악과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미나토미라이홀의 매력은 문턱이 낮다는 점이다. 물론 개관기념으로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시카고 교향악단, NHK교향악단 등 유명공연을 개최했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100년 콘서트' 등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요코하마 은행 후원으로 영·유아 대상 클래식 체험놀이, 아마추어 합창발표회, 무성영화 피이프 오르간 음향으로 재구성한 '시네마와 파이프 오르간의 만남', 1만원대의 '클래식 크루즈' 등은 간판프로그램이다. 특히 1920년에 제작된 무성영화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입혀 예술영화로 되살려 낸 '패걸조로'(The Mask of Zoro)는 이사가와현, 미와자키현 등 일본 전역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최고의 히트작이다.

미나토미라이홀의 마사모토 미키 홍보실장은 "미나토미라이홀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뉴욕필 하모닉 가 공연했던 바로 '그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친근한 존재"라면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매년 공연이 열릴 때마다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jhpark@kwangju.co.kr (한지섭의도움=일본정부관광국(JNTO))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추천년의 징검다리! 백년년의 미소!

제6회 순창장류축제
 * 기간 : 2011. 11. 4(금)~11. 6(일) 3일간
 * 장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강천산군립공원 일원
 * 주요행사 : 개막식, 폐막식, 장류체험, 농특산물·전통장류 전시판매, 문화체육행사 등
 * 주최·주관 :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제49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
 * 체육대회 : 10. 29(토)~10. 30(일) 공설운동장
 * 전야제 : 11. 3(목) 16:00~19:00 읍내 일원
 * 가을음악회(MBC 가요베스트 TV녹화) : 11월 3일(목) 19:00~ 생활체육운동장

| | | | | | | |
|-------------|---------------------------|---------------------------------|-------------|-------------------------------------------|-------------------------------|-------|
| 4일 (금) | 09:00-18:00 | 장류체험관 상설운영 (전통고추장·매주·인절미 만들기) | 장류체험관 | 09:00-18:00 | 장류체험관 상설운영 (전통고추장·매주·인절미 만들기) | 장류체험관 |
| | 09:30-18:00 | 어린이 발효과학체험 | 장류연구소 | 09:30-18:00 | 어린이 발효과학체험 | 장류연구소 |
| 5일 (토) | 09:00-12:00 | 제23회 순창군 민속놀이 경연대회 | 부무대 | 10:00-11:00 | 순창고추장비밀마당 (년비발콘서트) | 주무대 |
| | 10:00-11:30 | 고추장 실고 세발자전거타기 | 주무대 | 11:00-15:00 | 제11회 순창군 읍·면 농악대회 | 주무대 |
| | 10:30-14:00 | 순창장류 장기대회 | 경연장 | 11:00-12:00 | 고추장마을소 & 화관인절미 세계인의 매운맛 체험 | 부무대 |
| | 11:00-12:00 | 순창농업·음식·문화·관광 순창 2011인분 비빔밥 만들기 | 주무대 | 12:00-13:30 | 맛밖! 영암행! 순창고추장 2011인분 비빔밥 만들기 | 부무대 |
| | 12:00-13:00 | 순창농고 금과소리 공연 | 주무대 | 13:00-17:00 | 제7회 순창장류축제포럼 | 장류연구소 |
| | 12:00-13:00 | 고추장 먹고 자란 어린이 미니축구대회 | 주무대 | 13:30-18:00 | 장류 뮤지컬 | 부무대 |
| | 13:00-16:00 | 장류고을 청소년 어울미당 | 주무대 | 13:30-15:00 |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순창 매주 만들기(106M) | 부무대 |
| | 13:00-16: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읍내 일원 | 14:00-15: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민속마을 |
| | 16:00-17:30 | 개막식 리허설 | 주무대 | 15:00-16:00 | 순창고추장 역사퀴즈 맞추기 | 민속마을 |
| | 17:00-17:30 | 개막식 식전공연 (황아리리타 등) | 주무대 | 16:00-17:30 | 신명나는 문화공연(밴드공연 등) | 부무대 |
| | 17:30-18:00 | 순창전통고추장 지리적표시제 잠인선포식 | 주무대 | 17:30-18:00 | 순창전통고추장 깜짝 경매 | 주무대 |
| 18:00-18:30 | 개막식 | 주무대 | 18:00-21:00 | 장류축제로 하나 되는 군민 한마당잔치 - 2011 슈퍼스타 Sunchang | 주무대 | |
| 18:30-19:00 | 순창고추장 세계로... 화랑 순창 풍선 날리기 | 주무대 | | | | |
| 19:00-19:30 | 불꽃놀이 | 주무대 | | | | |
| 19:30-21:00 | 개막축하공연 | 주무대 | | | | |
| 6일 (일) | 09:00-18:00 | 장류체험관 상설운영 (전통고추장·매주·인절미 만들기) | 장류체험관 | 09:00-18:00 | 장류체험관 상설운영 (전통고추장·매주·인절미 만들기) | 장류체험관 |
| | 09:30-18:00 | 어린이 발효과학체험 | 장류연구소 | 09:30-18:00 | 어린이 발효과학체험 | 장류연구소 |
| | 10:00-11:00 | 제12회 순창국악공연 | 주무대 | 10:00-11:00 | 순창고추장비밀마당 (년비발콘서트) | 주무대 |
| | 11:00-15:00 | 제11회 순창군 읍·면 농악대회 | 주무대 | 11:00-15:00 | 제11회 순창군 읍·면 농악대회 | 주무대 |
| | 11:00-12:00 | 고추장마을소 & 화관인절미 세계인의 매운맛 체험 | 부무대 | 11:00-12:00 | 고추장마을소 & 화관인절미 세계인의 매운맛 체험 | 부무대 |
| | 12:00-13:30 | 맛밖! 영암행! 순창고추장 2011인분 비빔밥 만들기 | 부무대 | 12:00-13:30 | 맛밖! 영암행! 순창고추장 2011인분 비빔밥 만들기 | 부무대 |
| | 13:00-14:00 | 장류 뮤지컬 | 장류연구소 | 13:00-17:00 | 제12회 순창국악공연 | 주무대 |
| | 13:00-17:00 | 제1회 전국 다문화가족 장류 맛자랑 경연대회 | 경연장 | 17:30-18:00 | 순창전통고추장 깜짝 경매 | 주무대 |
| | 14:00-15: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민속마을 | 18:00-19:00 | 폐막식 및 풍동날리기 | 주무대 |
| | 14:00-15: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민속마을 | 19:00-21:00 | 폐막공연 | 주무대 |
| | 14:00-15:00 | 순창매주 수원성취 기원문달기 | 부무대 | | |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